

나랑 별 보러 가지않을까?



별마로천문대에
서 감상할 수 있는
영월읍 야경.



◇인스타 성지 영월 별마로천문대
별마로천문대는 별마로 별과 마루(정
상), 로(고요할 로)의 합성어로 '별을 보
는 고요한 정상'이라는 뜻이다.
2001년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전국
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시민 천문대로 해
발 799.8m 봉래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
으며 지름 800mm 주망원경을 갖추고 있다.
보조망원경 4대를 갖춘 슬라이딩 돔(보
조관측실)에서 실제로 천체들을 관측할
수 있으며, 내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남
녀노소 천문학을 좀 더 쉽고 즐겁게 접할
수 있다.

해발 799.8m 봉래산 정상
망원경 등 천체관측 장비 보유
9500개 별 낚시 상관없이 감상

산 아래 탁트인 경치 일품
남녀노소 인생샷 성지로 각광
영월군, 명소화 프로젝트 추진

천체투영실에 설치돼있는 투영기
(GOTO(일본의 오르페우스(Orpheus
)로 8.3m 돔 스크린에 9500여 개의 별
표현가상의 별을 투영해 낚시에 상관없이
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으며, 별자리 찾는
방법, 별자리 이야기 등의 재미있는 설명
도 들을 수 있다.

◇눈과 입이 달달한 별마로천문대
별마로천문대는 연간 관람객이 196
만여 명으로, 평균 116일보다 80일이 많
고 인구의 영향을 덜 받는다. 이때문에 국
내 최고 최상의 관광 여건을 갖춘 시민 천
문대로도 불리운다.

산 정상에서 넓은 시야로 내려다 보이는
영월읍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이다.
영월읍 야경은 낮 보다는 사방이 캄캄해
개인적으로 낮 보다는 한밤에 밤하늘에 반
짝이는 별들이 땅 아래로 내려 온 듯 수만
개의 조명이 수놓아진 한 밤 야경이 더욱
더 아름답다.

사방이 탁트인 유리벽이 감싸 별도의 조
명을 켜지 않아도 따스한 햇살이 환하게
감싸는 카페 799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우
유배(우유에 빠진 별마로)와 초코별(초
콜에 빠진 별마로)을 마시며 감상하는 영
월의 수려한 자연 경관도 큰 사랑을 받기
에 충분해 보인다. 영월읍 하송리 시가지
에 마련된 승강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
를 이용해 올라가야 한다.

◇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감동
별마로천문대는 누구나 인생샷을 촬영
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인스타 성지
로 꼽히고 있다. 세계적인 명차 BMW도

영월 별마로천문대와 별 일주의 모습을 질
주하는 차량의 모습에 담아 CF를 제작했
으며 별마로천문대에 오르는 길을 와인딩
(구불구불한 도로)으로 표현하며 (관광
객들의)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소
개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
는 별마로천문대의 인제 양성과 관광 활성
화 성과를 인정해 각각 어린이 과학 체험
공간 확충 지원 사업과 스마트박물관-미
술관 기반 조성 공모 사업 대상지로, 문화
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아름다운
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'대한민국 밤방콕
곡 100선'에 별마로 천문대를 포함시키기
도 했다.

◇세계적 명품 관광지
별마로천문대는 지난해 부터 봉래산 명
소화 프로젝트에 따라 승용차 운행을 통해
하고 셔틀버스로만 오를 수 있도록 했지만
한 해 동안 2만5000여명이 찾는 등 사계
절 명품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
다.

별마로천문대는 천문학 관련 교육프로
그램 등 천문학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등
을 제공하고 있지만 천문학자만을 위한 공
간이 아닌 하늘과 별을 사랑하는 이와 조용
한 사색과 명상, 그리고 힐링을 필요로 하
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나눠주는
사랑의 장이다.

별마로천문대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'별
마로 천문대는 2012년 남자친구와의 첫 여
행지였고, 2018년 그남자친구로부터 프러
포즈를 받은 곳'이라며 '정말 특별한 장소

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
스를 맞아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았다'고 후
기를 남겼다.
◇국내 최대의 우주·천문 도시로 비상
기를 날렸다.
영월군에서는 별마로천문대가 자리하고
있는 봉래산에 천망타워, 전망동, 모노레
일 등을 갖춘 봉래산 명소화 프로젝트를
추진 중이다. 별마로천문대를 중심으로 국내
봉래산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국내
최대의 우주·천문 도시로 비상하겠다는 계
획이다.

별마로천문대와 금강정이 있는 봉래산
과 영월읍을 하늘사다리로 연결하고 정령
포와 장릉, 선돌, 관동현 등 인근 관광 명
소까지 연결시켜 영월군을 야간 및 체류형
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.
전망타워(H=55m·W=28m)와 모노레
일(30인승 6대·L=1.65km·W= 2.5m),
동강보도교(L=264m·B=2m), 전망동(모
노레일 상부승강장), 금강공원(별빛정원
'별빛로드'),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고 영월
관광의 랜드마크로 계속 성장할 봉래산의
미래가 더욱 궁금해 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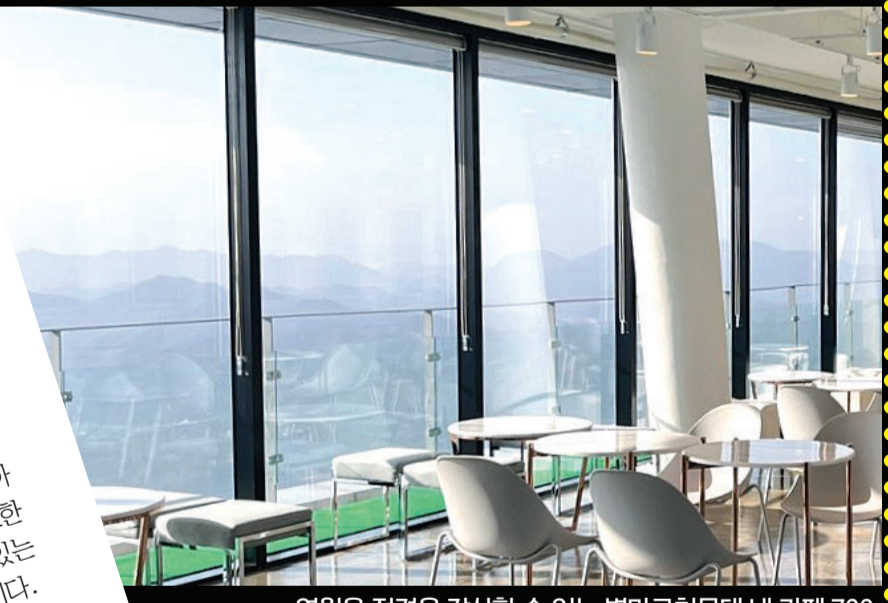
◇인근 가볼만한 곳
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
강릉대 영월에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조선
6대 임금 단종의 무덤인 장릉(세계 문화
유산)이 자리하고 있다. 또 동강에 버려진
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호장 엄흥도(嚴興
道)가 몰래 수습해 등을 지산 자락에 암장
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충절의 도시
영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.

청령포 바로 옆에는 미디어 체험관과 장
릉사터 오백나한상의 3D 몰입형 미디어아
트 영상 등 과거 우리 나라 산업을 선도한
폐광 지역의 관광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
영월통합관광센터도 특별한 볼거리이다.
높이 70m의 임석으로 큰 칼로 암석을
조각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선돌바위와
금강정원 내 라디오스타박물관 등도 영월
읍내 별마로천문대와 함께 즐길만한 명소
이다. 영월 봉래산 활공장에서 출발해 동
강 둔치까지 패러글라이딩으로 내려오며
웅장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도 감상할 수도
있다.

7월영월 오윤석 기자·사진제공=영월군



별마로천문대 외부 전경



영월읍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별마로천문대 내 카페 799



별마로천문대 내부 모습.